

한국타이어, 타이어 포장 전면 폐지

한국타이어(대표 서승화)가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지를 활용한 타이어 포장을 중단할 방침이다. 직사광선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타이어를 포장했으나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10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줄여왔으며 최근에는 극히 일부 상품만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타이어 판매점에 타이어 전용 보관창고가 보편화되고 체계적이며 안전한 타이어 물류시스템이 정착되면서 포장이 없어도 된다는 내부 분석에 따라 타이어 포장을 전면 중단하고 포장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친환경 타이어 개발에 집중시킬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서승화 부회장은 “타이어 포장을 폐지함으로써 글로벌 친환경 경영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2008년부터 일반 타이어에 비해 연비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키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친환경 저연비 타이어인 <앙프랑>을 공급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10/25>